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80개 사찰 돌며 화합 구현

포천사암련 혜승스님



"원효스님의 육화정신에 따라 '화합'을 가장 중요한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승가위의 확립을 위한 승가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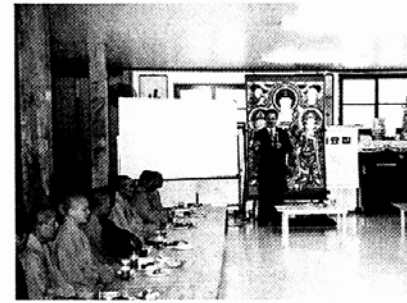
1977년 창립한 포천군사암련회 9대 회장인 혜승스님(보문정사 주지).

스님은 "사암련이 두달에 한번씩 여는 정기회의를 관내 80여개 사찰을 순례하며 개최하고 있다"며 "이 때 회원스님들은 방문사찰의 포교방법을 듣고 공감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암련"을 표방한 포천사암련은 포천경찰서 경승실도 사암련 스님 10명이 매달 순례에 따라 돌아다니며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친목이 두텁고 지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려와 재가불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사과정 교양대학 열어

청년·군 포교도 적극적

이에 따라 승가교육을 위



포천사암련이 승려자질 향상을 위해 외부인사초청특강을 갖고 있다.

해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있으며 자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재가불자를 위해 사암련 차원에서 97년 문을 연 2년제 교양대학은 99년 60명의 법사를 배출해 지역사찰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천 사암련은 사찰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을 모집하여 오는 10월 27기 법사과정 교양대학을 개강할 예정이다.

청년불교의 활성화가 지역불교를 견인하는 토대가 된다는 인식하에 포천사암련은 청년회와 군불자 포교 및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천군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비롯한 모든 불교행사는 주최자가 청년회이고, 사암련은 뒤에서 재정적 물질적 뒷받침 역할만 하고 있다. 현재 포천군청년회가 군단위 청년회로는 드물게 1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돋보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사암련의 뒷받침에 따른 것이다.

혜승스님은 "내년부터 봉축행사도 포천읍 뿐 아니라 각 읍과 면단위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삼봉종 사정원장도 맡고 있는 혜승스님은 1963년 우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서울 태릉에서 불미포교원을 운영하다 1990년 포천에 보문정사를 창건했으며, 어린이법회, 합창단법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ukim@buddhapia.com

불교계-지자체 호국영령 합동 천도제

강원·고양 사암련등 주민 화합·방생법회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불교계와 합동으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천도제를 봉행한다.

각 지역 사암련협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게 호국영령을 천도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안녕 등 지역사회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지역포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불교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신홍사, 월정사, 태고종·천태종 강원종무원, 조계종 춘천승가회로 구성된 강원도 불교종단연합회는 화천군 비북문화재단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11시 화천읍 봉어섬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제 및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준비위원장 현각(원주 성불원 주지)스님은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의 원혼을 천도하고 전쟁과 고통이 없는 정토세계를 지역사회에 화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신홍사주지 무이스님, 청평사주지 청화스님, 석왕사주지 백운스님, 삼운사주지 월도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은표 화천군수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 불교사암련협회(회장 홍선, 홍국사주지)도 고양시 후원로 19일 오전 10시 30분 문예회

관에서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스님을 비롯해 지역스님과 임철렬 경기도지사, 황교선 고양시장, 3군단 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영령 천도제 및 생전예수제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사암련협회(회장 성운, 삼천사주지)는 1일 자운(수국사주지) 진관(진관사주지) 혜장(송천사주지) 두진(진관사 주무)등 지역스님과 불자, 노재동 구청장, 은평구청에 이희원 의장,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 공무원, 구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진관사에서 호국영령 천도제와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은평구사암련연합회는 순국선열유족자녀 17명에게 5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wukim@buddhapia.com



중교계와 시민단체는 합동으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화·우익 및 양민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5월28일 지리산에서 개최했다.

한국전쟁 희생영령 '화해'

지리산 위령제 불교계등 5천여명 참가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가 5월 26일 지리산 백사골 달궁계곡에서 불교와 원불교 등 7개 종파와 190여개 시민단체 화·우익 양민, 희생자 유족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위령제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원혼들이 찾아오는 길을 닦는 길놀이와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씨김굿으로 시작돼, 유족대표들이 분향과 헌주, 서울대 이재주 교수 진혼무, 김영옥 여수시립국악단장의 진혼가로 영령들을 위로했다.

공동봉행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평화로운 남북통일은 지리산에서 솟겨진 넋들이 위로되고 우리 가슴속 대립과 분별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서로 용서하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생명'이라는 21세기 문명의 화두를

제시했다. 공동집행위원장 수경스님(지리산 국민행동 상임대표)은 "앞으로 좌우 대립문제를 공론화시켜 일단 산사 람들부터 대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지리산에 화합을 위한 위령제법회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등산여중고 종교편향교육

불기소처분에 항고

경북 영주·봉화 실선승가회 회장인 도기스님은 영주지역 일부 중·고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도기스님은 항고장에서 "등산여자중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성경교육 시간강의를 득한 사실이 없으면서 주중 시간표에 '심·실'이라는 암호로 표기된 뒤 실제로는 성경교육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장 재량권을 이유로 의견을 묵살하여 직무유기 했다"고 밝혔다. 도기스님은 항고대리인으로 용태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용인요양원 청와대등 방문

연꽃마을(원장 각현스님) 용인노인요양원은 입소 어르신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60여명을 초청, 7일 청와대, 서대문형무소, 남산타워 등으로 서울 나들이를 다녀온다.

중단소식

조계종

경주 해황사 창건법회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17일 오전 10시 경주 감포에서 해황사 창건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사의 첫 번째 분원인 해황사는 대지 5,000평에 건평 300평 규모로 대웅전 육각정 등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도 및 참선수행도량으로서 청소년수련회, 행자교육도량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태고종

수계산림 행사등록

제25기 합동등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사등록을 30일까지 서울 종무처와 각 시·도교구 총무원에서 받는다.

참가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1,2차에 걸친 소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행사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오는 10월 경 태고종립선암사에서 실시되는 합동등도수계산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20일 종회의원 보선

10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20일까지 각 교구별로 치러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10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 부장급 이상 간부부 임하여 종회의원이 상실된 지역구 의원 8명과 직능직 의원 2명을 새로 뽑기 위한 것이다.

천태종

상월조사 27주기 열반제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27주기 열반대제가 18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윤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다.

진각종

회당조사 탄생 100돌 행사

진각종조 회당대조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첫 행사가 탄생성지인 울릉도에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9일 첫날에는 금강원에서 관정수 취구익 및 기념사업 원단 추진을 서원하는 법회를 갖고 20일 오후 6시부터 도동에서 남북통일기회 대법회를 봉행한다.

백제불교 도래지 성역화 첫삽

영광군 진내리...마라나타상·만불전 등 건립

전남 영광군(군수 김봉렬)은 7일 법성면 진내리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사업 기공식을 갖는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조감도

지난해 기독교계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미뤄진 바 있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사업은 2003년까지 1만4천여평 부지에 151억원이 투입돼 18m 높이의 마라나타스님상 건립과 만다라광장, 108계단, 만불전, 부용류, 스루파양식 탑 전시장, 일주문, 팔각정 등이 들어선다. 또 인도 파키스탄 양식지로 지어질 불교유물전시관에는 마라나타 스님이 모셔온 불도와 간다라시대 불교문화재가 전시되며, 마라나타스님이 타고 왔던 선박도 만들어 바다에 띄울 계획이다. 배우위에는 마라나타스님의 고향에서 채취해온 파키스탄의 식물이 심어진다.

특히 백제불교를 전래한 마라나타스님상 건립은 불교계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백제불교도래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다정)가 모금운동을 통해 35억원을 총당할 예정이다.

영광군청 관계자 장현호씨는 "영광의 백제불교도래지 명소는 마라나타스님의 고향인 간다라의 불교문화와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며 "국내

뿐 아니라 백제불교를 받아들인 일본 불교인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천성산 지킴이 발대

임도개설·습지훼손 감시

양산시가 허락없이 경내지에 임도를 개설해 심각한 사찰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는 내원사(주지 혜능)는 10일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개설과 고원습지 훼손을 막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갖는다. 천성산 화엄사에서 열리게 되는 발대식에는 내원사 주지 혜능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 산악회, 일반시민 등 2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내원사는 5월 30일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 "경내지에 포함된 임도를 즉각 원상복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천미희기자

海印佛教美術院. 나누어 지지 않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북정동 18-27 대학 문화원 빌딩 代 02)2265-010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031) 315-5429

밀양 - 얼음골 신비의 참다슬기. 당신의 "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밀양얼음골 (시냇물농원) 상담문의 (자료신청) 055) 355-5626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180원/분, 미국 -> 한국: 220원/분. (주)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